

하기봉사의 의의와 보람

나환자 정착촌 안양 성나자로와
안동 성자원을 다녀와서

인턴 金 鍾 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하여 의치 76상을 하게 되었고, 안동에서는 우리 단독으로 의치 63상을 해주었다. 이 의치 하나 하나는 우리 클럽 유동수 지도교수님 이하 모든 회원들의 피와 땀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제반 어려운 여건하에서 이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것은 학교당국과 우리의 사업에 불심양면으로 적극 후원을 해주신 서서울로타리클럽과 정착촌 지도자들의 각별한 배려가 없었던들 불가능했을 것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이제 구라사업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방법을 찾고 있는것 같다. 서서울 로타리클럽 같은 곳에서는 안동 성좌원 정착촌 진료의 직접적인 재정적 후원자가 되어 주었고, 그의 대한 비타민, 안진洋行 등 여러 제약회사에서 약품지원을 해주었다. 구라사업은 누구 한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나병퇴치, 음성나환자, 정착촌에는 모든 국민의 이해로 참여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도 나병퇴치의 밝은 날이 올 것이다.

무의촌 봉사란 방학이 되었으니 으레 한번쯤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당연한 행사의 하나여서는 분명 아니어야 한다. 철저한 목적의식을 인식하고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여름 피서 간셈으로 진료에 임한다면 선의의 무의촌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무의촌이 우리의 피서지도 놀이터도 아니다. 우리들에게는 배움과 교훈의 광장으로 여겨야 한다. 의료봉사를 어디 까지나 배움의 연장이라 생각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서투른 헛병아리 의사의 흉내를 내었음에는 주민들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우리가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더불어 하기 무의촌 진료 준비가 시작되었다. 올해로써 우리 구라봉사회의 전국 나환자 정착촌 하기진료도 9년째 맞이하게 되어 준비하는데도 모두들 익숙했다. 우리의 클럽도 9년째 성하여 올해는 하기 방학기간내 안양 성나자로 마을과 안동 성좌원 두 장소에서 차례로 했다. 안양에서는 일본 岐阜치과 대학 구라봉사회원과의 합동으로



※ 筆者는 서울大學校 齒科大學 救癩奉仕 會員임

아무리 열성을 다할지라도 봉사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엘리트 정신으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 좁고 가난한 나라에서 최고 학부를 나온 엘리트로서 더구나 국가의 혜택을 듬뿍 받는 국립대학을 나온 사람으로써 내가 받은 이상으로 사회에 되돌려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생각을 언제 어디서나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대한 양보하여 생각하더라도 내가 건강하다는 것 만으로도 병고에 시달릴 받는 사람에 비해 크나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에 이 은혜를 끝고루 나누어 주고 싶어지는 마음을 구라봉사 사회 진료를 통해서 봉사할 수 있음을 기쁨으로 생각한다.

우리 회원들은 나환자 진료를 통해서 봉사의 즐거움을 사무치도록 느낄 수 있다. 우리가 봉사라는 말을 일상 생활에서 즐겨 쓰지만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보름간의 하기 나환자 진료를 하는 중에 우리들의 미려한 힘으로 치아가 없어 고통 받던 나환자들에게 의치를 해 드렸을 때 일그러진 눈에서 눈물이 맺히며 기뻐하는 모습에서 모든 회원들은 가슴이 뚫듯함을 느끼게 된다. 특히 나환자들에게서는 치아의 회복이란 상당한 의미를 지닌 것 같았다. 손가락 발가락등 신체의 일부가 파괴되거나 심지어 하나 하나 떨어지는 체험만 하다가 없어졌던 일부가 다시 회생했다는 기쁨과, 그리고 나병이란 만성병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동안 투병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약제와 아울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만 되기에 치아가 나환자들에게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치아회복으로 말미암아 투병에도 한층 용기를 갖게 되는 것 같았다.

선한 행동뒤에는 선한 마음이 뒤 따르는 것 같다. 진료가 끝나면 우리 회원들의 마음은 구름 한 점 없는 가을하늘처럼 마음이 푸르게 되어 한 여름의 폭염에 뒹은 지쳤으나 마음은 겨울처럼 맑게 된다. 여기에는 인간이 쓰고 있는 모든 가식은 없어지고 오직 순수한 마음과 마음만이 존재하게 되어 우리 회원들 사이에는 어떠한 벽도 없어지게 된다. 대화의 장벽이니 세대단절등 현대 물질문명 사회의 모든 벽들이 사라진, 순수한 인간에만이 우리 회원들을 감싸게 된다. 학교내에서도 문제 거리였던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의 벽등은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친구간의 알력, 선후배간의 불협화음등은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사랑만이 우리 회원들의 가슴에 가득 차게 된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국인 일본학생들과 같이 진료할때도 싱긋 웃는 웃음 하나만으로도 모든 대화가 통하게 되는 것 같다.

마음이 순수하게 되니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일할 수 있어 일하는 즐거움을 우리 회원들 모두가 나환자 진료를 통해서 몸에 익히게 된다. 이런 동기들에서 회원들이 학교를 졸업하여 명예 회원이 되더라도 진료만 있다면, 군대에 가더라도 혹은 개업을 하더라도 언제 어디에 있던 기꺼이 참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진다.

나병이란 전염병이기애 우리의 진료에도 전염의 가능성이 항존하므로 무리하게 일할 수 없다. 질병이란 개체의 저항력이 저하되었을 경우에 공격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힘써하여 어느 한 회원이 먼저 피로하게끔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서로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나환자 진료를 통해서 몸에 익힌다. 굶은 일에는 뒷전에 서지 않고 항상 앞장서서 도우는, 내가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선배나 후배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모두들 열심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나환자 진료를 통해서 의사로서는 잊어서는 안될 생명의 존엄성을 배운다. 사회와 심지어 부모 형제로 부터도 냉대를 받으면서 몽그러진 손발로 황무지를 일구어 옥토를 만들어 살아가는 정착촌 주민들의 강인한 의지속에서 생명에 대한 무한한 애착을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 이제 정착촌들은 어딜가나 옛날의 단지 살겠다는 정착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번영의 기쁨을 마련한 것 같다. 안동 성좌원 경우에는 도움만 받던 단계를 지나, 나환자 가운데서 더욱 불우한 환자를 더 건강한 환자들이 돕고 지내는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나환자들도 이웃의 더욱 불우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다면 환자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바뀌게 될 것이다.

나환자 진료를 통하여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은 것 같다. 특히 가장 큰 보람은 나자신 한사람의 치과 의사로써의 긍지를 갖고 모든 환자들에게 봉사한다는 신념하에 나의 앞길을 갈 것이다. 최악의 고통을 받으면서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는 나환자들을 내 손으로 치료했다는 자부심은 앞으로 어떤 경우의 환자를 대하더라도 나의 모든 노력으로 성심 성의껏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